

2022년 가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생활함

메시지 5

주님의 복음 봉사의 내용과 길을 지닌 사역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생활함

성경: 막 1:14—3:6

- I. 주님의 삶은 그분의 일과 움직임과 사역이었다. 그분의 일은 그분의 생활이었고, 그분의 움직임은 그분의 존재였다. 그분에게는 그분의 생활과 일과 움직임과 사역에 차이가 없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사셨다 — 비교 눅 22:26-27, 요 10:10 하, 고전 15:45 하, 요일 5:16 상, 고후 3:6, 빌 1:25.
- II. 우리는 노예-구주의 놀랍고 탁월한 복음 봉사의 내용의 실재를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 막 1:14-45.
 - A. 그분이 복음 봉사에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었다 — 막 1:14-20.
 1.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모든 과정과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구속의 일과 함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의 내용이다 — 막 1:1-8, 말 3:1-3, 비교 4:1-2.
 2. 그분의 선포는 속박되어 있는 비참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다. 그분의 가르침(막 1:21-22)은 어둠 속에 있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진리의 신성한 빛을 비추는 것이었다.
 3. 그분의 선포는 가르침을 내포하고, 그분의 가르침은 선포를 내포했다 — 마 4:23, 막 1:38-39, 3:14, 6:12, 14:9, 16:15, 20.
 - B. 그분이 복음 봉사에서 하신 두 번째 일은 진리를 가르치신 것이었다 — 막 1:21-22.
 1. 진리는 성경의 사실들 위에 신성한 빛이 비추어 그러한 사실들에 속한 신성한 이상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방영하는 것이다 — 요 8:12, 32, 36, 1:4, 14:6 상.
 2.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신 것은(막 2:13, 4:1, 6:2, 6, 30, 34, 10:1, 11:17, 12:35, 14:49) 사람들을 사탄적인 어둠에서 신성한 빛 안으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었다(행 26:18). 세상의 빛(요 8:12, 요 9:5)이신 노예-구주는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백성을 비추시기 위하여 어둠의 땅 갈릴리에 큰 빛으로 오셨다(마 4:12-16).
 3. 그분의 가르침은 죽음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빛의 말씀을 해방하여 그들이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게 했다 — 요 1:4.
 - C. 그분이 복음 봉사에서 하신 세 번째 일은 귀신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이었다 — 막 1:23-28.
 1. 사람들이 귀신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신 사람을 사탄이 빼앗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주 예수님은 사탄에게서 나온 일을 제거하시기 위해 오셨고(요일 3:8), 그분이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은(막 1:34, 39, 3:15, 6:7, 13, 16:17) 사람들이 사탄의 속박(눅 13:16), 곧 사탄의 어둠의 권세(행 26:18, 골 1:13)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왕국(막 1:15)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 D. 그분이 복음 봉사에서 하신 네 번째 일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신 것이었다 — 막 1:29-39.
 1. 병은 죄에서 비롯되며,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생기게 된 사람의 비정상적인 상태의 상징이다. 주님은 그들의 아픈 상태를 고치시어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 — 막 1:34, 3:10, 6:5, 13, 56, 시 103:1-22.

2.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처방을 주고 그들이 치료받도록 신성한 약을 주는 의사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한다 — 마 9:11-13, 눅 10:33-37, 비교 잠 4:20-23, 출 30:25.
- E. 그분이 복음 봉사에서 하신 다섯 번째 일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었다 — 막 1:40-45.
1. 나병은 고의로 지은 죄, 주제넘어 지은 죄, 작심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심각한 죄를 상징한다 — 요일 3:4, 비교 사 14:12-15, 레 13:2, 14:9.
 2. 미리암(민 12:1-10), 게하시(왕하 5:20-27), 웃시야(대하 26:16-21)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나병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대표 권위와 하나님의 규정과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르는 거역 때문에 생긴다.
 3. 나병환자가 정결하게 되려면 “머리털과 턱수염과 눈썹까지 모든 털을 밀어야 한다.” — 레 14:9 상.
 - a. 머리털은 사람의 영광을 과시하는 것을 상징하고, 턱수염은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상징하며, 눈썹은 나면서부터 소유한 탁월함과 장점과 미덕을 상징하고, 온몸의 털은 타고난 힘과 역량을 상징한다.
 - b. 그러므로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는 것은 자아와 그 모든 영광, 존귀, 탁월함, 장점, 미덕, 힘, 역량을 십자가라는 ‘면도기’로 제거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아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닐 때 정결하게 된다 — 갈 6:3.

III. 마가복음 2 장 1 절부터 3 장 6 절까지에 기록된 다섯 가지 사건은 노예-구주께서 그분의 복음 봉사를 수행하시기 위해 취하신, 긍휼이 넘치고 살아 있는 다섯 가지 방식을 계시한다.

- A. 주님은 신성한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으로서, 병에 걸려 아픈 사람의 죄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사탄의 억압에서 해방하시고(행 10:38) 하나님께로 회복하실 수 있었다. 율법학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그들의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막 2:1-12).
1. 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하나님-구주이시자 노예-구주이셨다. 그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죄들을 용서하는 권위도 있으셨다 — 눅 5:21, 24.
 2.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시 130:4)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눅 7:36-50). 주님의 구원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 ‘평안히 가게’(눅 7:50) 하시며, ‘가서 이제부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요 8:11) 하신다.
- B. 그분은 병든 사람들과 비참한 사람들의 의사로서, 자신의 동족에게 불신실하고 불충실한 세리들 및 사회에서 멸시받고 소외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하나님에 대한 누림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 바리새인 가운데 스스로 의롭다 하나 긍휼이 없는 율법학자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유죄판결했다 — 막 2:13-17, 눅 1:78-79.
1.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강건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 때문에 눈먼 그들은 자신들이 병들었고 의사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 마 9:12-13.
 2. 주님은 의사로서 그분의 ‘환자들’이 그분과 잔치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에 대한 누림 안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신다.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잔치이다 — 고전 5:7-8, 시 51:2, 12.
- C. 그분은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신랑으로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금식하게 하지 않으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셨다 — 막 2:18-22.
1. 금식의 참된 의미는 주 예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더 이상 먹지 않고 그분 아닌 어떤 것에도 입맛을 갖지 않는 것이다 — 마 6:16-18, 사 58:3, 요 6:57, 비교 민 11:4-7.
 2.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완전한 구원에 의해 우리의 세 부분으로 된 전 존재를 유기적으로 치료하시기 위한 의사가 되심으로써 그분의 복사판인 이기는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얻으신다 — 롬 5:10, 비교 말 4:2.
 - a.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법적인 구속을 위해 우리에게 적용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의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의 새 옷, 새 겹옷이시다 — 눅 15:22, 고전 1:30, 마 9:16.
 - b.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값을 해야 할 수 없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기운을 내게 하시는 우리의 새 생명이신 새 포도주이시다 — 사 9:13, 마 9:17, 골 1:12.

3.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일 뿐 아니라,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들러리’가 될 ‘신랑의 친구들’(막 2:19)이다. 그분을 새 의복과 새 포도주로 누림으로 우리는 그분의 단체적인 ‘들러리’, 곧 새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 D. 주님은 종교적인 규정보다 그분을 따르는 이들의 배고픔을 관심하시어, 그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종교의 규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참안식일의 안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만족을 누리는 문제임을 가리킨다 — 막 2:23-28.
1.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의 일을 멈추며, 우리의 자양분과 공급을 위한 임재의 떡이신 주님을 먹음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누리는 것이다 — 출 25:30.
 2.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정해진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고 나서 안식하셨지만, 사람은 먼저 안식하고 나서 일한다 — 창 2:2-3.
 3.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위해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과 하나 됨으로 일한다는 표시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또한 영원한 언약으로서, 우리가 먼저 그분을 누리고 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하여, 그분과 하나 되어 일함으로 그분과 하나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증하는 것이다 — 출 31:12-17.
- E. 안식일에 주님은 종교적인 의식(儀式)을 지키는 것보다 고통받는 사람을 해방시키시는 것을 관심하셨다. 종교적으로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 없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을 하는 것이다 — 막 3:1-6.
1. 주님께 종교적인 규정들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분의 몸의 지체들을 치료하는 것은 그들이 가난하거나 심지어 죽었다 해도 그분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2.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사례는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의 사례이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처럼 우리는 완전히 해방될 필요가 있다.
 3. 노예-구주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으로서 종교적인 의식과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해방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노예-구주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 요 8:32, 36, 롬 6:12-23, 8:2.
- IV. 위에 있는 노예-구주의 복음 봉사의 다섯 가지 방식은 다섯 단어 — 용서(막 2:1-12), 누림 (막 2:13-17), 기쁨(막 2:18-22), 만족(막 2:23-28), 자유(막 3:1-6) — 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을 접촉함으로 이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신 그분을 체험할 수 있다(막 5:24-34).
- A. 우리가 주님을 직접적으로 접촉할 때, 즉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질 때,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주입되셔서 우리의 치료가 되신다. 사람들을 돕는 참된 방법은 그들을 주님과 직접적인 접촉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 B. 우리는 모두 매순간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은 그분의 몸의 건축을 위하여 우리의 매일의 구원과 매순간의 공급이 되실 수 있다 — 요 4:24.